

이라크전쟁 후 중동 프로젝트 집중!

산자부, 중동시장 진출전략 마련 ... 현대건설 등 미수금 회수도 지원

정부가 앞으로 예상되는 제2중동 플랜트·건설 특수에 국내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-이라크 전쟁 후의 중동 플랜트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키로 했다.

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두산중공업 등 23개 플랜트 기업과 수출보험공사 등 5개 수출 지원기관, 석유공사, 가스공사, 한전 등 에너지 유관기관의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-이라크 전쟁 발발 후 국내기업의 중동지역 플랜트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,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등 중동 플랜트 진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미국-이라크 전쟁 발발 후 현재까지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쿠웨이트를 제외한 중동 국가에서의 플랜트 건설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며, 정부는 플랜트 수출기업과 비상 연락체제를 갖추고 사태악화 시 현지 파견인력 철수, 건설장비 및 기자재 보호 등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.

아울러 미국-이라크 전쟁 조기 종결 시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뿐만 아니라 오일달러를 기반으로 한 중동 산유국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돼 제2중동 플랜트·건설 특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정부는 국내기업이 그동안 중동 지역에서 쌓아온 신뢰와 우수한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이라크 전후 제2중동 플랜트·건설 특수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수주 마케팅 지원, 수출보험 및 금융지원 확대 등 중동 플랜트 진출 지원시책을 전개할 방침이다.

중동지역 국가 발주예정 프로젝트 현황(2003)

구 분	발주규모	주요 프로젝트
이 란	34억달러	이란 사우스가스 가스전 개발 11-13단계(30억달러) 등
사우디	33억달러	쇼아이바 담수발전 플랜트(10억달러) 등
UAE	30억달러	후자이라 담수발전 플랜트(9억달러) 등
오 만	30억달러	무스캇 폐수처리 플랜트(2억5000만달러) 등
리비아	35억달러	멜리타-시칠리간 가스관 공사(10억달러) 등
쿠웨이트	65억달러	아흐마디 신 원유수출항 건설 플랜트(10억달러) 등
카타르	52억달러	돌핀 육상 가스처리 플랜트(15억달러) 등

산자부는 간담회를 통해 <이라크전후 중동 플랜트시장 진출전략>을 마련하고 ▷ 2/4분기까지 유전복구, 정유, 발전, 통신망 등 국내기업이 참여 유망한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진출 지원 ▷이라크 전쟁 조기종결 시 이란, UAE, 오만 등 중동 주요국가에 고위급 민관합동 플랜트 수주단 파견(5월) ▷중동지역 내 주요 석유·가스 생산국에 대해 에너지 구매력과 플랜트 수주 연계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.

중동 플랜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보험 및 금융지원도 확대해 국가 신용도가 낮은 중동 산유국(사우디·UAE 등)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를 65%-20%까지 할인해 주고 발주국 정부의 지급보증 없이도 사업성 있는 플랜트 프로젝트에 대해 8억달러까지 대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.

또 중동국가의 정부 발주사업에 대해 경제협력기금(EDCF)과 수출금융을 동시에 공여하는 혼합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간다.

한편, 산자부는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및 수출입은행 등 수출기관과 협력해 현대건설 등 4개 기업의 이라크 수출미수금 14억2000만달러도 회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4/03>